



세계 컨테이너물동량 향후 20년간 3배 증가 예상 COSCO 관계자 심한 선복과잉 없을 것으로 진단



국제 컨테이너 물동량이 향후 20년간 3배 가량 증가하는 등 충분한 화물 공급으로 극단적인 선복과잉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COSCO 미국법인 가오웨이지에(高偉杰) 총재는 최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캐나다-아시아 해사포럼'에서 국제 정기선 시장 추세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그는 "향후 20년간 물동량이 현재보다 3배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있는 만큼, 외부에서 말하는 정기선 시장의 선복과잉 현상의 출현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단언했다.

그는 그러나 "선사들이 반드시 이에 따른 혜택을 입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평양항로의 경우 올해 물동량이 10%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이며, 향후 2년간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7%보다 높은 8% 이상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오 총재는 특히 중국의 무역규모 확대가 환태평양 지역 해운시장 성장의 주요 원인이라고 전체

하고, 작년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1조4,200만달러였으며, 2010년에는 2조3,0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중국과 다른 환태평양 국가들의 무역 규모는 매년 20%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중국의 수출액이 2010년까지 현재대비 55% 증가하는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같은 물동량 상승에도 불구하고 각 항로별 운임은 오히려 10-15% 하락해 선사들의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1980년에서 1999년 사이 세계 무역규모는 매년 평균 12%씩 성장했으나 이 기간 동안 운임은 7% 상승에 그쳤으며, 1985-2000년 사이 정기선사들의 3개 주간선항로(아-유럽, 아-미주, 유럽-미주)에서의 운임수익은 23-46% 하락해 하주들은 30억달러의 운임을 절약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업계에서 화물 가격 대비 해상운임의 할당 비용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예를 들어 한 병에 50달러짜리 위스키의 물류 비용은 15%에 달하는데, 2,500달러짜리 텔레비전의 해상 운임은 12.5달러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가오 총재는 이같은 점에 근거해 전세계 무역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해운업계의 이익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선사들은 저이윤 경영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